

## 보육실습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ractice on Student Teachers' Perceived  
Efficacy for Child Care and Teaching

현 정 환\*

Jung-Hwan Hyun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hild Care and Teaching(CCT) practice on student teachers'(N=361) perceived Efficacy for Child Care and Teaching(ECCT), including relationships between ECCT and generalized self-efficacy. Instruments were the ECCT scale, the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and self-evaluation concerning CCT. Research design consisted of pre-test, CCT practices, and post-test. Results showed that ECCT scores increased after CCT practice: ECCT was related with generalized self-efficacy and to self-evaluation concerning CCT.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CCT experience is important to student teachers' perceived ECCT, and ECCT, in turn, is a predictor of actual CCT behavior.

**Key Words** : 보육효능감(Efficacy of Child Care and Teaching), 보육실습(Child Care and Teaching practice), 일반성 효능감(Generalized Self-efficacy)

---

※ 접수 2003년 6월 31일, 채택 2003년 8월 8일

\* 교신저자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E-mail : jhhyun@stu.ac.kr

## I. 서론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론을 처음으로 제창한 Bandura(1977)는 그의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인간행동의 규정요인으로 「선행요인」, 「결과요인」, 「인지요인」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인간, 행동, 환경 사이에서 상호작용의 순환과정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특히 선행요인에서 예측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행동에 대한 예측」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어떤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예측, 즉 「결과예측(outcome expectation)」이라고 하며, 후자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으로 이를 「효능감 예측(efficacy expectation)」이라 불렀다.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결과 예측보다는 효능감 예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메커니즘과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Bandura, 1986, 1997). 그 이유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어느 정도 노력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인내할 것인가” 등의 인간행동이 그 사람의 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제까지 효능감에 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보면, 예를 들어 「행동치료나 자기통제에 관한 연구(금연행동, 공포증 등), 일상생활에 적용한 연구(직업의 선택, 스포츠 등), 학업달성과 관련된 연구 등에서 보면 후속행동의 결정인으로서 효능감의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 한 예로 금연에 관한 연구를 보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유혹적인 장면에서 그 유혹에 어느 정도 잘 견딜 수 있는가” 라고 하는 효능감의 수준은 그 사람의 앞으로의 흡연재개 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DiClemente(1981)의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행동요법적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결심하게 된 피험자 집단과 자기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게 된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금연 후 5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두 집단간의 금연유지율을 비교한 결과, 집단간의 차이는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금연 후 4주가 되는 시점에서 금연에 대한 효능감을 평정한 결과, 금연을 계속 유지한 집단과 흡연을 재개한 집단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보였다. 즉 흡연유혹 장면에 대한 금연 효능감이 높을수록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흡연재개의 예측에 있어 효능감이 효과적인 예측지수임을 입증한 연구가 많다(Nicki, Remington & McDonald, 1984; DiClemente, Prochaska & Gibertini, 1985). 실생활 장면에서 적용한 Barling과 Abel(1983)은 테니스를 취미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테니스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평정해서 12항목으로 구성된 테니스 수행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테니스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테니스 수행행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Craske와 Graig(1984)는 피아노 연주회장면에서, Hujii(1991, 1992)는 수업장면에서의 거수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현정환(1993) 및 Schunk 등(Schunk, 1984; Schunk & Cox, 1986; Schunk & Hanson, 1985, 1989)은 학업과제달성장면에서 효능감이 후속행동을 예측하는데 유효한 요인임을 각각 검증하고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양육 효능감」이란 아동의 최적의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Dorsey, 1999)이나 효율적으로 보육을 수행할 수 있다

는 부모 자신의 자신감(Teti & Gefand, 1991)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행동에 대해 훨씬 반응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높은 수준의 부모의 양육 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drique et al, 1994; Bornstein et al, 1998, Coleman & Karraker, 1998; 문태형, 2002). 이처럼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후속행동의 결정인으로서의 효능감의 효용성을 재확인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육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양육 효능감의 문제를 보육시설내지 유치원에서의 교사의 보육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 오늘날 보육내지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보육(교육)능력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전반에 대한 효능감」을 「보육효능감」이라고 부르면서 이는 「보육현장에서 교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아동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보육효능감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동일하게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라고 할 수 있는 보육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실습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보육실습'이라는 과목은 보육관련 학과의 학생들이 보육교

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 중에 하나이다. 이 과목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4주간 이상(200시간 이상)을 보육시설에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목의 개설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보육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내지 응용하고 동시에 보육현장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졸업 후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개설된 보육실습 과목이 실제로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키면서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인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실습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연구방법을 통해서 검토하는데 있다. 그래서 본 연구 성과는 교과과정 가운데 실습교과목의 중요성의 재인식과 함께 보다 충실한 교과운영을 위한 노력에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는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효능감(self-efficacy) 이론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원으로 「수행행동의 달성,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그리고 생리적 상태(정동환기)」의 4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이 네 가지 가운데 「수행행동의 달성」은 다른 정보원에 비해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행행동의 달성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에 필요한 목표를 성취했다는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원보다 영향력이 크고,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육실습'은 수행행동의 달성이라는 경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과목보다도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육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해왔던 단어로는 Ashton(1985)이 제안한 '교

사 효능감'(teacher efficacy or teacher's sense of efficacy)이다. 그가 정의하고 있는 교사효능감이란 「아동의 학습을 교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보고 있다. 사실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이 제안된 시기부터 시작되었다(Bandura, 1977). 여기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Gibson 과 Dembo(1984)에 의해 교사효능감 척도가 개발되고부터였다. 이들은 교사 효능감을 「개인적 교수 효능감(personal teaching efficacy)」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teaching efficacy)」으로 나누어서 제안을 하였다.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란 “교사 개인이 아동의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고 있으며, 「일반적 교수 효능감」이란 교사 개인만이 아니라, 교사 일반이 아동의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한다. Gibson 과 Dembo(1984)은 이런 입장에서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사 효능감의 평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이 개발된 도구를 280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상대로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을 추출하게 된다.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과 관련이 깊은 논문으로는 Gorrell과 Hwang(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Gibson 과 Dembo(1984)이 제안한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평정척도 16개 항목을 이용하여 유아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생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4학년생은 1학년생보다 개인적 효능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는 단지 Gibson과 Dembo(1984)이 제안한 평정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교수효능감을 평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아교육 내지 영유아 보육이라는 영역의 특

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볼 때 현직 보육교사 내지 예비보육교사의 보육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유치원이나 보육교사들의 보육효능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 즉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평정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桜井(1992a)는 교사효능감에 대한 검사도구와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른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대한 검사 도구를 고안하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도 보육실습이 예비 보육교사의 보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桜井(1992b, 1998)의 보육효능감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제까지 교육실습이 교사의 교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桜井, 1992a; 山沢, 1993)는 발견할 수 있지만, 영유아의 보육장면에서 보육실습경험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라고 할 수 있는 보육학과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육실습의 전·후의 시점에 각각 보육 효능감을 측정하여, 보육실습에 따른 보육효능감의 변화를 검토한다.

또한 본 연구는 보육실습이 일반성 자기효능감(이하는 일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에는 2가지의 수준이 있으며, 하나는 임상이나 교육장면에서 볼 수 있는 특정한 장면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이고, 또 하나는 인격특성으로 볼 수 있는 주로 인간행동의 일반에 대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이다(Bandura, 1977; Sherer et al., 1982; 坂野·東条, 1986). 「보육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이라고 하는 한정된 장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말하며, 「일반효능감」

이란 인격특성적인 자기효능감을 말한다. 자기효능감 이론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상승은 해당 행동만이 아니라, 치료 장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동장면으로 일반화한다고 보고 있다 (Bandura, 1977, 1986). 그러므로 보육이라고 하는 특정의 장면에서의 효능감이 일반적 행동 레벨의 자기효능감에도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대학(교)에서의 보육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육교사 교육원에서의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 두 교육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 인지에 대해 검토한 연구가 없으며, 또한 이들이 학업 중에 비

정규직 형식으로 보육관련시설에서 경험한 내용이 얼마나 실제 보육교사로서의 보육효능감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것도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보육실습에 대한 자기평가도 실시하여 보육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육실습이 보육효능감 및 일반효능감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2. 교육과정의 차이와 보육효능감 인지와와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한다.
3. 보육실습전의 보육경력이 보육효능감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4. 보육실습에 대한 자기평가와 보육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총 361명이며, 교육기관의 차이에 따른 집단으로 분류해보면 S대학교 보육학과 4학년생 136명과 M대학교 부설 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원생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성별은 전원이 여학생들이다. 이들의 연령 평균은 S대학교의 경우는 만 22.73세(만21~39세), 교육원생의 경우는 만 21.93(만20~36세)로 두 집단간에 연령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 2. 조사 시기 및 방법

본 조사기간은 2000~2002년 동안 3년에 걸

쳐 이루어졌다. S대학교 보육학과는 매년 4학년 1학기 중 5월부터 4주간의 보육실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 시기는 실습이 시작되기 1주일 전에 사전 보육효능감(이하는 pre-ECCT)과 사전 일반효능감(이하는 pre-GSE)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사후 보육효능감(이하는 post-ECCT)과 사후 일반효능감(이하는 post-GSE), 그리고 실습에 대한 자기평가에 대해서는 실습이 끝난 6월초에 각각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M대학교 부설 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원생의 경우는 보육실습이 7월 중순부터 4주간 실시되었기 때문에 pre-ECCT와 pre-GSE에 대한 조사는 6월말에, post-ECCT와 post-GSE, 그리고 실습에 대한 자기평가는 9월초에 각각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본 조사는 보육실습 성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실습생들에게 알리면서 가능한 솔직하게 답변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 3. 검사도구

#### 1) 보육효능감의 척도

보육효능감을 평정하는 척도는 표 1과 같이 총1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일본의 三木・櫻井(1998)의 연구에 의해 신뢰도가 검증된 것으로서 Cronbach의  $\alpha$ 계수가 실습 전에는 .83이며, 실습 후에는 .85로서 모두 만족할 만한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실습전 후의 상관계수는 .62( $p < .0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척도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鎌樋・樋口・清水(1982)의 Locus of Control 척도를 이용하

였다. 이 척도는 1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의 평정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득점이 높을수록 내적 통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결과를 보면 내적 통제경향의 득점과 보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23( $p < .01$ )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모두 검증된 보육 효능감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질문항목에 대한 평정은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2, 잘 모르겠다(보통이다)-3,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4, 상당히 그렇게 생각한다-5.」의 5단계로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평정치를 그대로 점수화하였으며, 5번, 7번, 14번에 대해서는 5→1...1→5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수치가 클수록 보육효능감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 2) 일반효능감의 척도

일반 효능감(generalized self-efficacy)의 척도

〈표 1〉 보육효능감의 척도

1. 나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아이들의 연령이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활동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보육프로그램이 갑자기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6. 내가 맡은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의욕이 없는 아이에게 의욕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어떤 연령의 아이를 담임하더라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내가 맡은 반에서 왕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보호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아이의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반 전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집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에게 적절한 놀이지도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기본적 생활습관을 익히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아이들의 특성이나 활동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육환경(인적, 물적)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2〉 일반효능감의 척도

요 인	항목의 내용
행동의 적극성	1.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을 갖고 있다. 2.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걱정을 많이 한다. 3.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망설이지 않고 한다. 4. 모든 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5.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6. 어떤 일이라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7.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태도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다.
실패에 대한 불안	8. 과거의 실패나 부정적 경험이 생각나서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9. 일을 끝낸 후,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10.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11.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다. 12. 조그마한 실패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쓴다.
능력의 사회적 위치	13. 나는 친구들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남보다 기억력이 좋다. 15. 나는 친구들 보다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 16. 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로는 坂野·東條(198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일반성 자기효능감의 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작성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증한 것이다. 여기서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의 선택과 이런 항목의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16항목이 작성되고 3개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요인을 특징짓는 항목으로서 요인 부하량이 .300이상의 항목을 추출하였다. 표 2는 이렇게 해서 선택된 16개의 항목을 각 요인별로 정리한 것으로 제1요인에 부하가 높은 항목은 「행동의 적극성」에 관한 항목집단이다. 그리고 제2요인에 부하가 높은 항목은 「실패에 대한 불안」에, 제3요인에 부하가 높은 항목은 「능력의 사회적 위치」에 각각 관련된 항목집단이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선택된 16개의 항목은 재검사법, 평행 검사법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신뢰성도 타당성도

충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질문항목에 대한 평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는 편이다-2, 잘 모르겠다(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정말 그렇다-5」의 5단계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평정치를 그대로 점수화하였으며, 「행동의 적극성」의 2, 4, 7항목에 대해서는 5→1...1→5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행동의 적극성」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3) 보육실습에 대한 자기평가

실습이 끝난 후 보육실습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평가는 실습이 끝난 후 각자 보육실습에 대한 자기반성의 의미로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도록 하였다. 보육실습에 대한 자기평가 척도는 보육활동 전반에 걸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계획의 준비성(1~5번 항목)」「효과적인 보육의 실천(6~11번항목)」「관찰 및 평가결

과의 효용성(12~14번 항목), 「보육환경의 조성(15, 16번 항목), 「사무업무의 충실(17번 항목), 「인간관계의 향상(18, 19번 항목)의 19개 항목으로 만들어져 있다(부록 참조). 각 질문항목에 대한 평정은 5단계로 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대단히 좋다-5, 좋다-4, 보통이다-3, 나쁘다-2, 아주 나쁘다-1」의 평정치를 그대로 점수화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SPSS 10.0 for Window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차이와 효과를 검토하기 Pearson 상관계수, t-test, oneway ANOVA를 구하였다.

### Ⅲ. 결 과

#### 1. 보육효능감, 일반효능감, 자기평가의 상관 계수

보육효능감과 일반 효능감, 그리고 자기평가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했다. 일반효능감의 경우는 3요인, 즉 「행동의 적극성(이하는 '적극성'이라고 함), 「실패에 대한 불안(이하는 '불안'이라고 함), 「능력의 사회적 위치(이하는 '능력'이라고 함)」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육실습의 전후에 관계없이 보육효능감과 일반효능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보육효능감이 강할수록 「일반 행동의 적극성」이나 「능력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패에 대한 불안」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보육실습이 끝난 후의 자기평가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도 보육효능감과 일반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기평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전 보육효능감과 사후 보육효능감의 상관계수가 충분히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사전, 사후에 관계없이 일반효능감

이나 자기평가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육효능감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재확인해주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2. 보육실습이 보육효능감 및 일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육실습이 보육효능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하여 실습 전후로 각각 조사한 pre-ECCT와 post-ECCT의 평정치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ost-ECCT(평균3.71, 표준편차0.44)는 pre-ECCT(평균3.57, 표준편차0.4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322)=-5.64, p<.001$ ). 이번에는 각 질문 항목별로 pre-ECCT와 post-ECCT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5번, 7번, 14번 항목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한편 보육실습이 일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일반효능감의 3요인(적극성, 불안, 능력)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성」과 「능력」 요인에서 보육실습에 의한 유의한 변

〈표 3〉 보육효능감, 일반효능감, 자기평가의 상관분석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pre-ECCT	3.57	.41		41**	-.28**	.34**	.42**	.24**	-.18**	.27**	.23**
(2) 적극성1	3.30	.63			-.43**	.30**	.33**	.65**	-.37**	.20**	.20**
(3) 불안1	2.88	.78				-.08	-.05	-.24**	.53**	-.80	-.09
(4) 능력1	3.32	.61					.29**	.19**	.05	.62**	.19**
(5) post-ECCT	3.71	.43						.49**	-.30**	.40**	.48**
(6) 적극성2	3.39	.68							-.39**	.29**	.31**
(7) 불안2	2.86	.88								-.07	-.22**
(8) 능력2	3.42	.57									.37**
(9) 자기평가	3.72	.52									

주) 적극성1, 불안1, 능력1은 pre-GSE(사전 일반효능감)의 3요인이며  
적극성2, 불안2, 능력2는 post-GSE(사후 일반효능감)의 3요인이다.

\*\*p<0.01

〈표 4〉 보육효능감의 각 항목별 t검증 결과

질문 항목	pre-ECCT		post-ECCT		t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61	.67	3.70	.65	2.38*
2	3.45	.87	3.72	.66	4.93**
3	3.41	.70	3.58	.71	3.30**
4	3.24	.81	3.45	.77	4.19**
5	3.12	.97	3.16	1.02	.60
6	3.87	.70	4.11	.67	5.41**
7	3.48	.92	3.55	.88	1.16
8	3.42	.84	3.56	.82	2.75**
9	3.55	.72	3.67	.70	2.88**
10	3.84	.63	3.96	.68	2.97**
11	3.56	.69	3.68	.68	2.71**
12	3.79	.64	3.90	.62	2.59**
13	3.43	.69	3.65	.71	4.37**
14	4.03	.80	4.10	.80	1.30
15	3.53	.67	3.70	.69	3.95**

주) \*p<0.05 \*\*p<0.01

〈표 5〉 일반효능감의 요인별 t검증 결과

요인	pre-GSE		post-GSE		t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적극성	3.30	.64	3.39	.68	3.10**
불안	2.88	.78	2.86	.88	-.50
능력	3.32	.61	3.42	.57	3.78**

주) \*\*p<0.01

화가 인정되었다. 즉 보육실습 전보다 끝난 후에는 「일반 행동의 적극성」이나 「능력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 3. 교육과정 및 보육경력이 보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보육관련 교육과정의 차이가 보육효능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육관련 교육과정이 1년인 보육교사 양성과정 학생과 4년제 보육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의 pre-ECCT의 평정치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1년의 경우=평균3.57, 표준편차0.38; 4년의 경우=평균3.55, 표준편차0.47). 그러나 보육실습이 끝난 후에 실시된 post- ECCT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는 교육기간이 4년인 학생(평균3.84, 표준편차0.46)의 보육효능감이 1년인 학생의 post-ECCT(평균3.64, 표준편차0.40)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1,328)=17.55, p<.001).

이번에는 교육과정과 일반효능감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pre-GSE와 post-GSE에 대해서 각각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표 6〉 교육과정 및 경력 유무와 일반 효능감과의 차이에 관한 분석

구분	요인	집단	pre-GSE		F치	post-GSE		F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기간	적극성	1년	3.31	.62	.09	3.32	.58	5.94*
		4년	3.30	.64		3.50	.80	
	불안	1년	2.86	.80	.32	2.92	.95	2.64
		4년	2.91	.75		2.76	.74	
	능력	1년	3.28	.65	1.53	3.33	.54	14.97**
		4년	3.37	.54		3.57	.58	
	자기평가	1년				3.56	.43	93.03**
		4년				4.18	.51	
경력유무	적극성	있음	3.46	.61	8.65**	3.51	.58	4.58*
		없음	3.24	.63		3.34	.71	
	불안	있음	2.62	.66	16.41**	2.76	.78	1.91
		없음	2.99	.80		2.90	.92	
	능력	있음	3.35	.58	.55	3.51	.59	3.67
		없음	3.30	.62		3.38	.56	
	자기평가	있음				3.72	.51	.001
		없음				3.72	.53	

주) \*p<0.05 \*\*p<0.01

6에서 알 수 있듯이 실습 전(pre-GSE)에는 교육 과정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습 후의 일반효능감(post-GSE)에서는 「적극성」과 「능력」요인에서 4년 교육생이 1년 교육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육경력의 유무와 보육효능감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육실습 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학생 108명과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pre-ECCT의 평정치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F=10.49, p<.001), 보육경력집단(평균3.68, 표준편차0.45)이 무경력 집단(평균3.52, 표준편차0.39)에 비해 보육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의 post-ECCT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는 보육경력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경력 집단=평균3.76, 표준편차0.41; 무경력 집단=평균3.70, 표준편차0.44).

이번에는 보육경력의 유무에 따른 일반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pre-GSE와 post-GSE에 대하여 3요인별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표6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적극성」요인에서만 경력집단이 무경력집단에 비해 보다 강한 효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 4. 보육효능감과 자기평가와의 관련성

보육실습에 대한 자기평가는 실습이 끝난 후에 실시하였으므로 보육실습후의 보육효능감(post-ECCT)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post-ECCT의 평균(3.71)을 중심으로 High집단과 Low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자기평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post-ECCT의 High집단(평균3.93, 표준편차.54)이 Low집단(평균3.52, 표준편차.42)비해 보육실습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49.10, p<.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보육실습이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있다. 또한 동시에 후속행동의 결정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효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해보았다.

먼저 보육실습의 전후에 관계없이 보육효능감과 일반효능감은 대체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보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일반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이라고 하는 특정 장면에서의 효능감이 일반적 행동 레벨의 자기효능감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의 상승은 해당 행동만이 아니라, 치료 장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동장면으로 일반화한다(Bandura, 1977, 1986)」라고 하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런 보육효능감과 일반효능감은 보육실습에 대한 자기평가점수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후속행동의 결정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효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보육교사로서 보육에 대한 자신감 형성내지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는데 있어 보육효능감의 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보육실습이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4주 동안의 보육실습경험이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효능감의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육효능감의 세부항목 분석에서도 대체적으로 실습전보다 실습후의 보육효능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육실습은 일반효능감에서 「행동의 적극성」과 「능력의 사회적 위치」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

실습의 경험은 보육효능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반적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서 보육실습경험이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유아교육내지 보육현장에서 실습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내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습교과목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나아가 보육실습이 보육내지 교육현장과 학문현장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하여 보다 체계화되고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교육과정 및 사전 보육경력이 보육효능감, 그리고 일반효능감의 인지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먼저 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른 보육효능감 인지의 차이에 관한 분석에서 실습 전에는 교육과정 1년 집단과 4년 집단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습 후에는 4년 집단의 보육효능감이 1년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두 집단 모두 현장경험에 대한 두려움은 동일하게 갖고 있었지만 교육과정이 4년 집단의 예비보육교사들은 그 동안 보육관련 교육과 훈련을 오랫동안 받아온 결과, 실제적으로 보육현장에서도 1년 집단에 비해 보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얻게 된 보육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실제 보육실습에 대한 자기평가 점수에 있어서 4년 집단은 1년 집단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일반효능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보육실습 전에는 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른 일반효능감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습후에는 일반효능감의 요인 가운데 「행동의

적극성」과 「능력에 대한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4년 집단이 1년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보육효능감의 상승이 일반효능감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4년 집단과 1년 집단의 비교에서 실습 전에는 보육효능감 및 일반효능감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습 후에는 4년 집단의 보육효능감과 일반효능감이 동시에 1년 집단에 비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 전에 보육현장에서 보조교사로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보육실습 전에는 경력집단이 무경력집단에 비해 보육효능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습 후의 보육효능감에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사전 보육경력이 있는 집단은 무경력 집단에 비해 비록 보육효능감의 수준이 일시적으로 높았지만, 보육실습으로 인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예비보육교사들이 이전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각종 어린이 교육관련 기관에서 유아들을 가르치고 지도한 경력보다는 보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보육시설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는 보육실습이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더욱 강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이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보육경력의 유무에 따른 일반효능감의 차이를 보더라도 실습전의 일반효능감 가운데 2개의 요인에서 경력집단이 무경력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실습 후에는 「적극성」의 카테고리에서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도 보육실습의 효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보육실습에 대한 자기평가점수에 있어서도 사전 경력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예비보육교사들이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경험하는 체험보다는 보육실습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통한 보육체험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보육실습이 단지 이전에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단지 보조교사로서의 경험에서 얻는 보육에 대한 자신감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실습교과목의 중요성을 되새겨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학과 내지 유아교육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에 들어있는 보육실습(교육실습)이라고 하는 교과목은 유능한 보육교사의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며, 나아가 이 과목의 중요성으로 볼 때 금후 보다 체계적이면서 내용있는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육교육현장과 보육실천현장의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와 실습내용에 대한 공동연구, 그리고 실습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육실습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은 보육실습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어떤 편견을 갖거나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의 보육실습이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보육실습지의 인적, 물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있어서 이런 변인의 관여 가능성에 대한 것을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보육실습생에 대한 관찰이나 보육실습환경에 대한 인적 물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하여 단순히 보육

실습이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보다 발전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의 차이에 따른 보육효능감의 차이라고 하는 결과를 4년 과정의 학생이 1년 과정인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학생들보다 우수하다 라고 해석하는 설부른 판단은 극히 위험스럽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집단간에 실습시기의 차이에 따른 문제(4년 집단은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 5월중에 실습이 실시되었지만, 1년 집단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사나 활동의 기회가 적은 7월중에

실습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차이에 대한 현장의 보육교사나 시설장들의 편견 등의 변인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의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이 1년밖에 되지 않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학생들도 보육현장에서의 경력이 쌓이게 되면 얼마든지 보육에 대한 강한 효능감을 소유하는 훌륭한 교사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 연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과연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이 보육의 질을 보장해주는 우수한 교사인가, 과연 영유아가 좋아하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문태영(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玄正煥(1993). 努力帰属的評價が児童のエフィカシー予期の認知と学業成績に及ぼす效果 *日本教育心理学研究* 41, 221-229.
- 鎌樋雅彦, 樋口辰, 清水直治(1982). Locus of Control 尺度の作成と信頼性、妥当性の検討 *教育心理学研究*, 30, 38-43.
- 三木知子, 桜井茂男(1998). 保育専攻短大生の保育者効力感に及ぼす教育実習の影響、*日本教育心理学研究* 46, 203-211.
- 坂野雄二, 東条光彦(1986). 一般的セルフ・エフィカシ-尺度作成の試み、*行動療法研究*, 12, 73-32.
- 桜井茂男(1992a). 教育学部生の教師効力感と学習理由 *奈良教育大学教育研究紀要*, 28, 91-101.
- 桜井茂男(1992b). 教育学部生の教師効力感 *日本教育心理学会第34回総会発表論文集*, L1.
- 山沢正仁(1993). 教育学部生の教師効力感と教師イメージに与える教育実習の影響、*NIGATA Educational Psychologist*, 10, 52-53.
- Ashton, P. T.(1985). Motivation and the teacher's sense of efficacy. In Ames, C. and Ames, R.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Academic Press.
- Bandura, A.(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andura, A.(1997). *Self-efficacy : The exercrise of control*. N.Y. : Freeman & Company.
- Barling, J. & Abel, M.(1983). Self-efficacy, beliefs, and tennis performa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7, 265-272.

- Bornstein, M. H., Haynes, M., Azuma, H., Galperin, C., Maital, S., Ogino, Painter, K., Pascual, L., Pecheux, M., Rahn, C., Toda, S., Venuti, P., Vyt, A., & Wright, B.(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62-676.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raske, M. G., & Craig, K. D.(1984). Musical performance anxiety : The three-systems model and self-efficacy. *Behavior Therapy and Research*, 22, 267-280.
- DiClemente, C. C.(1981). Self-efficacy and smoking cessation maintenance : A preliminary report :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5, 175-187.
- DiClemente, C. C., Prochaska, J. O., & Gibertini, M.(1985). Self-efficacy and the stages of self-change of smok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9, 181-200.
- Dorsey, S.(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Gibson, S., & Dembo, M. H.(1984). Teacher efficacy :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569-582.
- Gorrell, J., & Hwang, Y. S.(1995). A study of efficacy beliefs among preservice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8, 101-105.
- Hujii, H.(1991).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kyosyu(handing raising), self-efficacy, outcome-expectancy, and outcome-value. *The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9, 92-101.
- Hujii, H.(1992). A study of "Hand Raising": behavior mechanisms in an arithmetic class. *The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0, 73-80.
- Nicki, R. M., Remington, R. E., & McDonald, G. A.(1984). Self-efficacy, nicotine-fading/Self-monitoring, and cigarettes-smoking behavio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2, 477-485.
- Rodrique, J. R., Geffken, G. R., Clark, I. E., Hunt, F., & Fishel, P.(1994).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among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abetes. *Children's Health Care*, 23, 181-191.
- Schunk, D. H.(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48-58.
- Schunk, D. H., & Cox, P. D.(1986). Strategy training and attributional feedback with learning disabled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 201-209.
- Schunk, D. H., & Hanson, A. R.(1985). Peer models : Influence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 313-322.
- Schunk, D. H., & Hanson, A. R.(1989). Self-modeling and children's cognitive skill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55-163.
-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부록> 보육 실습생의 자기평가표

1. 교재연구를 충실히 했는지?
2. 지도 목표에 적합한 지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3. 아동의 흥미와 능력을 잘 파악하여 이를 지도계획에 활용할 수 있었는지?
4. 정확하고 조리 있는 학습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었는지?
5. 필요한 학습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6. 왕성한 학습의욕을 일으키도록 동기유발이 잘 되었는지?
7.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전개할 수 있었는지?
8. 임기응변의 처리를 잘하여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었는지?
9. 개인차에 따른 지도를 하였는지?
10. 언어가 분명하고 음성的高低와 빠르고 느림이 적당하여 아동의 주의를 이끌고 갈 수 있었는지?
11. 아동들의 모임에 적극 참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했는지?
12.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13. 평가 결과를 잘 처리하여 다음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14. 아동들의 관찰 결과와 조사 결과를 지도에 활용할 수 있었는지?
15. 교실의 통풍, 채광, 청소 등 위생적인 환경구성을 배려했는지?
16. 교실 내외의 정리 정돈과 미화에 힘을 기울였는지?
17. 장부나 기록을 정확히 기입하여 그 보관에 신중을 기했는지?
18. 교사나 동료들과 잘 협력하여 호감을 갖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19. 아동들과 친밀해지고 신뢰받게 되고 나아가 존경받게 되었는지?